

재작년 초겨울이었다.

45일 된 젖소 암송아지가 만성적인 설사를 하고 있어 며칠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 들어가 보았다. 가까이 다가가도 좀체 일어나질 않기에 발로 탁 차 보았더니 그대로 발랑 자빠진다. 어쩔 일인가 하고 손으로 몸을 만져보았더니 전신이 차갑고 사지(四肢)는 뻣뻣해져 있었다.

즉시 진찰을 해 보았다. 맥박은 가늘고 약하게 1분당 30회를 유지했고, 호흡도 약하기만 하고 체온은 36℃로 나타났다. 바삭 마른 콧등 하며 움푹 파들어간 눈만 보아도 증세가 보통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시 송아지를 방으로 옮겨 눕히고 담요를 덮어 썬우고는 불을 지펴 방바닥을 뜨끈하게 하였다. 방의 온도가 4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는 「포도당」주사액을 사서 「비콤」용액과 「안나카」, 「헤파스테릴」등을 희석하고서는 혈관주사를 놓아 주었다. 주사액이 몸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아주 느리게 하여 4시간에 걸쳐 주사하였다. 그리고는 복부와 가슴, 등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마사지를 했다.

마사지는 이틀째 되는 날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됐고 주사도 처음처럼 하여 정맥에 놓았다. 약간의 차도가 있는 듯도 했으나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3일째 되는 날도 되풀이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더니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생기를 되찾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날은 밖으로 내보내고 4일째는 「비콤」을 주사했더니 건강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죽기 일보 직전의 송아지를 살려낼 수 있었다. 허탈로 쓰러진 송아지를 정성을 다해 구한 것이다.

대부분의 낙농인은 송아지가 쓰러지면 당황하여 수의사를 부르게 되고 급히 달려온 수의사는 포도당 액에다 여러가지 약을 희석하여 잠깐동안 치료를 마치고는 돌아가게 되는데 대개는 치료한 보람도 없이 죽고 마는 것을 가끔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축주들의 말을 빌리면 송아지가 체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의사도 살릴 수

없는 일이라고 안타까와 하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체온이 떨어져 있는 송아지를 밖에서 그대로 방치한 채 급히 주사를 놓게 되면 살리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더우기 겨울, 특히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에는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약의 힘만을 과시하고 방심해서는 안될 것이고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가 그대로 치료를 해야만 소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처럼 수의사를 부르기 전에 따

송아지의 혈관부전 血管不全 치료요령



이 강 진

〈시흥군 수암면 산현리 438/낙농인〉

끈한 방으로 옮기고 담요를 덮어썬워 체온을 유지하도록 인위적인 방법을 다한 후에 수의사를 불러야 할 것이다. 특히 약물을 주입할 때는 송아지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느린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복부, 가슴, 다리 등을 마사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아지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송아지가 쓰러지게 되면 축주는 수의사를 청하여 진찰을 해보아야만 병인(病因)을 알 수 있겠지만 송아지의 허탈에 대하여 10여년간의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느낀바를 기술코자 한다.

보통 「쇼크(Shock)」라고 하면 누구나 그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혈관부전(血管不

全)이라고 하면 낙농인 중에서도 생소하게 느끼는 분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혈관부전이란 글자 그대로 혈관기능이 완전치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은 중추성 혈관 운동신경이 마비된 것을 허탈이라고 하고 말초성 모세혈관이 마비된 것을 속크라고 한다. 따라서 속크와 혈관부전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진다.

혈관의 기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전신을 순환하는 혈액이 심장을 들어가기가 몹시 불완전해지게 된다. 혈액이 말초의 혈관, 특히 복강내의 혈관에 체류되어 있고 심장에 되돌아가는 혈액의 속도와 양이 감소되었을 때 또는 출혈로 혈액의 절대량이 감소되었을 때 이러한 혈관부전 상태가 나타난다.

혈관부전을 요약해본다.

원인 :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난산, 분만 후 자궁출혈, 일사병, 열사병, 설사, 급성 폐렴, 전염성 설사, 유행성 감기, 약물중독, 장출혈, 류마티스, 급성 고창증, 식체 등에서 많이 온다.

증세 : 대개는 급격히 발생하며 의식은 보통 잃지 않으나 때로는 잃을 때도 있으며 흥분, 경련 등을 일으킬 때도 있다. 콧등은 마르고 눈은 들어가며, 사지가 차거워지면서 호흡은 낮아진다. 체온이 떨어지고 맥박은 수가 많아지면서 미약해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맥박수는 점차 적어지다가 마침내 죽고 만다.

치료 : 더운물 찜질 또는 뜨거운 모래로 덮어 싸우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가장 편리한 방법은 앞의 예에서처럼 뜨거운 방에다 눕혀놓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 다만 주의를 요하는 것은 이때 너무 뜨거워서 열상(熱傷)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순환 불능이었던 혈액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여 순환혈액이 증가한다.

약물요법 : 혈액운동 신경제로서 에페트린, 안나카 등이 있고 혈관 충실제로서는 포도당이나 링게르액을 사용하며 영양제로서는 비타민 B와 아미노산이 사용되는데 그 외에도 간(肝) 기능 촉진제 등도 사용하며 병증에 따라서 달리 약을 써야 한다.

배합사료 절감운동

조사료를 확보하자!

작년 한 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한 사료곡물량은 3백95만톤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5%인 19만톤은 국내에서 자급하고 95%인 3백76만톤은 수입하였는데 수입 사료곡물에 지불한 외화는 무려 5억7천만 달러에 이른다.

언제까지나 막대한 외화를 지불하면서 사료곡물을 수입해다 축산을 영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는 축산인 스스로가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인구는 많고 국토는 좁아 구태여 외국의 예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미국·호주는 전체 농경지 중 초지의 비율이 70%이고 네덜란드·영국의 경우는 50%인데 비하면 전국토의 67%에 해당하는 산지를 개발하여 초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어진 자연조건을 최대한 축산에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의 여건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는데 벼짚·보릿짚의 사료화를 위해서도 다분한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소의 경우 특히 값싼 풀로써 키우겠다는 각오와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둡다. 우리처럼 소를 곡식으로 기르는 나라는 세계에서 드물다. 낙농가나 육우농가의 한숨과 눈물도 결국은 농후사료에 의존하다보니 생산비의 과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풀을 먹고 사는 소를 농후사료 일변도로 사양하다보니 산유량도 떨어지고 번식장에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4월 20일에 본회 주최로 있는 축산시책협의회에서도 거론되었고, 5월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연합회(AAAP)에 참석한 대표자들도 한결같이 조사료 위주의 소 사육방향을 제시하였다. 물론 제반 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AAAP에 참석한 대표자들이 회견에서 자기네들은 산은 곧 초지로 통하고 초지는 사료로 통하는데 한국의 현실을 보고서는 놀랐다고 피력한 적이 있다.

산립당국자는 당국자대로 농가는 농가대로 농후사료 절감방안을 깊이 생각할 단계에 이르렀다.

